

지속가능한 발전, 복지, 자연관광분야 벤치마킹을 위한

2024년도 옹진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보고서



옹진군의회

(<http://council.ongjin.go.kr>)

I. 서론 - 공무국외출장 개요1

II. 본론 - 주요 연수내용3

① 출장목적

② 공식 방문기관

1. 호주 한인 사회 복지회
2. 크린어웨이 자원 회수 센터
3. Alan Walker Village 실버타운

③ 주요 현장시찰지

1. 블루마운틴 국립공원(자연관광분야 벤치마킹)
2. 시드니 동물원(야생동물과의 공생 방안)
3. Carriage Works(노후시설 재생 방안)
4. 시드니 동부 해안(테마가 있는 길)

III. 결론 - 국외출장 종합의견30

1. 출장국 : 호주(시드니 일원)

2. 출장목적

- 천혜의 자연환경, 높은 수준의 복지를 보유하고 있는 호주를 방문하여 개발과 환경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고, 복지업무 담당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향후 웅진군 정책 입안에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획득하고 궁극적으로는 웅진군 정책에 반영하고자 함.

3. 출장기간 : 2024.05.20.(월) ~ 05. 25.(토), 5박7일

4. 출장자 인적사항 : 10명(의원5명, 의회직원 3명, 집행기관 2명)

소 속	직 위	성 명	성 별	비 고
웅진군의회	의 장	이 의 명	남	
“	부 의 장	김 영 진	남	
“	기획복지위원장	이 종 선	남	
“	경제건설위원장	김 택 선	남	
“	의 원	백 동 현	남	
의회사무과	과 장	김 창 원	남	
“	주 무 관	오 민 기	남	
“	주 무 관	박 호 제	남	
웅진군청	기획예산실장	이 철	남	
“	건설과장	고 수 영	남	

5. 주요 방문일정

일자	도시명	교통편	시간	세부일정
1일차 5/20(월)	인천	OZ601	17:00 20:00	인천국제공항 집결 및 수속 진행 인천 국제공항 출발,
2일차 5/21(화)	호주 (시드니 / 블루마운틴)	전용버스	전일	<p>▶ 시드니 국제공항 도착 및 가이드 미팅 ▶ 블루마운틴으로 이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문화 유산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탐방 - 과거 탄광 레일을 개조하여 만든 궤도열차 체험 - 자연유산 관광화 방안 연구 <p>▶ 시드니 동물원 견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생동물 관리, 상생 방안 모색
3일차 5/22(수)	호주 (시드니)	전용버스	전일	<p>[공식방문]: 호주 한인 사회 복지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 복지정책 관련 질의 <p>▶ Carriage Work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도심 재생 방안 벤치마킹 <p>▶ Barangaro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 항만시설 재개발 방안 벤치마킹
4일차 5/23(목)	호주 (시드니)	전용버스	전일	<p>[공식방문]: 크린어웨이 자원 회수 센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 재활용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모색 <p>[공식방문]: Alan Walker Village 실버타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요양시설 벤치마킹
5일차 5/24(금)	호주 (시드니)	전용버스	전일	<p>▶ 시드니 동부 해안 지역 탐방</p> <p>▶ 시드니 시내 탐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버브릿지, 오페라 하우스 등 <p>▶ NSW 주립 미술관</p> <p>▶ 하버 크루즈 체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 관광시설 벤치마킹
6일차 5/25(토)	인천	OZ601	19:00	인천 국제공항 도착 및 해산

II 본 론 - 주요 국외출장내용

1 출장목적

- 이번 공무 국외 출장의 주요 목적은 천혜의 자연환경, 높은 수준의 복지를 보유하고 있는 호주를 방문하여 개발과 환경보호 사이의 균형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복지정책을 벤치마킹하여 현재 초고령화 사회에 도달한 용진군 상황에 맞는 복지정책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호주는 1901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여 연방 국가가 됨으로써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정책, 노동자 친화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호주 사회보장에 대한 모든 업무는 독립 기관인 센터링크의 1000여 개의 사무실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다. 현재 호주에는 한 가지 이상의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 약 750만 명 이상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중 270만 명 정도는 고령 연금 수혜자, 나머지는 일반 복지 수혜자들로 추산된다.
- 호주는 1788년 1월 26일 1534명을 태운 11척의 배가 지금의 시드니 항구에 도착하여 국가로서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영국에서 온 배가 도착하기 전 호주는 하나의 커다란 섬과 마찬가지로였다. 당시 호주는 유라시아 대륙과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호주 고유의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었다. 하지만 유럽 대륙에서 온 정착민들이 호주에 도착하고 나서 호주 고유의 생태계는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우선 무분별한 사냥과 개발로 대형 포유류가 급속도로 멸종하게 되었고, 예로부터 호주 대륙에서 터잡고 있었던 호주 원주민 역시 대륙에서 온 전염병에 무방비로 노출돼 급속도로 인구가 감소하였다. 이런 파괴적인 정착 과정이 있고 난 후 호주 정부는 자연환경과 원주민 문화에 대한 보존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파상된 호주의 환경보호, 다문화화를 지향하는 정책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 국가로서의 역사가 채 200여 년에 지나지 않은 호주이지만, 과거의 문화와 건축물을 보존하는 도시 재개발 사업이 지금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도심 재개발 사업 및 문화 보존 사업에 관해서 벤치마킹을 하고자 한다.

2 공식 방문기관

1. 호주 한인 복지회(Australian Korean Welfare Association)

- o 주소 : B1/161 Arthur St Homebush West NSW 2140
- o 방문일자 : 2023.5.23.(목) 10:00
- o 기관개요 : 호주 한인 복지회 회장, 담당자 미팅, 호주 복지정책에 관한 브리핑 청취 및 질의응답 간담회 시행

○ 담당자 브리핑

- 기관 소개: 호주 한인 복지회는 1976년 뜻있는 초기 한국인 이민자로부터 시작되어 1979년 정식으로 결성, 주정부 인가를 받고, 1983년부터 호주 연방 정부로부터 기금을 받아 호주 한인 동포를 대상으로 복지 서비스, 호주 사회 정착에 대한 도움을 주고 있다.
- 주요 업무 소개
 1. 연로하신 어른들을 위한 돌봄서비스 운영
 2. 정부 주택 및 각종 민원서류 도움
 3. 각종 문화 행사 추진
 4. 가정 방문 서비스(정부 승인)
 5. 장애인 돌봄 서비스
- 호주 복지정책에 대한 설명: 호주는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충분한 복지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호주 정부는 코로나 시국에서도 호주 GDP의 14.6% 이상을 복지예산에 사용하였다. 호주 복지는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1. 공정한 세금 납부(소득 \$18,200까지는 비과세, 소득 \$18,201 ~ \$45,000 → 19% 세금, 최고 세율은 45% 누진세 적용)
2. 국민의 기부 의식 투철(기부금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
3. 자원봉사 정신(호주 국민 50% 이상이 자원봉사)
4. 퇴직금 활용(1992년부터 퇴직 보험 의무화, 현재 봉급의 세수 전 10.5%를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고, 봉급 중에서 추가로 퇴직 보험에 들면 세금 공제 혜택 제공)
6. 사회복지 근로자에 대한 높은 임금: 현재도 사회복지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근로자에 대한 높은 급여 수준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인책이 되고 있음.(실제로 사회복지 근로자 직렬을 가진 사람들의 이민의 경우 잘 받아들여지고 있다.)

○ 주요 질의 답변내용

- Q1. 한국에서는 복지 업종 근로자가 부족하여 외국인 인력을 사용하는 등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호주의 상황은 어떠한지.
- A1. 호주는 복지 관련 예산을 많이 편성하여 복지 제공인력에 대한 대우가 좋기 때문에 젊은 층에서도 복지 업종 근로를 희망하는 사람이 많이 있음. 특히 호주 역시 초고령화 사회(인구의 25% 이상이 65세 이상인 경우)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Age care 서비스 분야가 각광을 받고 있는 추세이다.
- Q2. 복지인력에 대한 처우가 좋다고 하는데 예를 들자면?
- A2. 호주는 소방관, 경찰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직종이 정부 주택에 입주할 원하는 경우 1순위 입주권을 부여해 준다. 참고로 건설사에서 아파트 등의 다세대 주택을 지을 경우 정부와 계약을 맺어 건물의 33.3%를 정부 주택으로 할애한다.

- Q3. 복지 관련 자격증의 경우 한국에서는 사회복지사가 있는데 해당 자격증을 호주에서도 인정해 주는지.
- A3. 인정해 준다. 그래서 관련 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호주에서 일하길 희망한다. 특히 호주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은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재가서비스 인력이기 때문에 관련 자격증과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수요가 많다.
- Q4. 호주에도 복지 사각지대가 많이 있는지.
- A4. 영주권자,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불법 이민자의 경우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 Q5. 요양병원을 이용할 경우 자부담이 있는지.
- A5.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 Q6. 장애인 복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 요청.
- A6. 호주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금 지급 기준을 총 4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가장 중증인 1등급이 1년에 약 15만 달러, 2등급 10만 달러, 3등급 8만 달러, 4등급 5만 달러 수준으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장애인은 이렇게 배정받은 금액을 필요할 때마다 쓸 수 있다. 용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도움을 주는 복지사에 대한 월급, 전동침대 등 가구, 차량에 보조 장치 설치비 등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해당 기금은 1년이 지나면 다시 초기화가 된다.(1년 동안 배정받은 금액을 전부 사용하지 못할 시 이월 불가) 장애인에 대한 지원금 뿐만 아니라 장애인 보호자에 대한 지원금 역시 지급된다.(한 달에 약 50만 원 정도) 장애인 보호자의 경우 취업에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원금으로 보조해 주는 것이다.

○ 기관 방문 사진



기관 방문: 호주 한인 복지회

2. 크린어웨이 자원회수센터

- 주소 : Little Forest Road, Lucas Heights. NSW 2234
- 방문일자 : 2024.05.23.(목) 10:00
- 방문내용 : 크린어웨이 자원회수센터 현장 방문 및 담당자 면담 시행
 - ※ 안전문제로 버스에 담당자 동승하여 브리핑 및 질의응답 진행

○ 주요 브리핑

- 크린어웨이 자원회수센터에 대한 설명

해당 시설은 1984년 가동하여 연간 9억 5천만 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여 매립하고 있는 시설이다. 해당 시설은 비올리아 라는 프랑스 소재 기업에서 운영하는 민간시설이다. 이 시설은 주로 주정부에서 수거하는 쓰레기를 처리하며 개인이 직접 차를 몰고 와서 쓰레기를 처리할 수도 있다. 처리하는 쓰레기의 양이 많다 보니 처리 비용 산정 절차는 자원회수센터 입장 시 그리고 퇴장 시 차량 무게를 재서 그 무게 차이만큼 금액을 산정한다. <사진 참조>



기관 방문: 크린어웨이 자원회수센터(폐기물 무게 측정 장소-웨이트브릿지)

이 시설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우선 반입되는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게끔 사전 처리 과정을 거친다. 가령 중금속 성분이 있는 폐배터리라든지 메탄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잔디나 나뭇가지 등 임업 폐기물은 전처리 과정을 거친 뒤 매립하거나 분리배출한다. <사진 참조>



기관 방문: 크린어웨이 자원회수센터(분리되어 보관중인 임업폐기물)

매립을 위한 폐기물 전처리 작업이 완료되면 매립을 시행하는데 그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매립지의 경우 대략 아파트 7층 높이까지 매립구역을 만들고, 5층 높이까지 쓰레기를 매립한다. (한층 당 대략 2.9미터)
2. 1층 높이까지 폐기물이 쌓이면 그 위에 900mm 높이의 흙을 덮은 뒤(침출수 누수 방지를 위한 성분 포함) 침출수와 메탄가스 포집을 위한 파이프를 설치한다.

3. 그리고 그 위에 자갈과 섬유 소재의 마감재로 덮은 뒤
4. 다시 30cm 정도의 흙을 덮어서 최종 마감한다.
5.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는 2번 과정에서 설치한 파이프를 통해서 포집한 다음 해당 업체에서 운영하는 발전 시설로 이동시킨다.<사진 참조>



기관 방문: 크린어웨이 자원회수센터(메탄가스를 활용한 발전시설)

○ 주요 질의답변 내용

Q1. 매립 말고 소각도 하는지.

A1. 소각은 하고 있지 않다. 소각을 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소각을 할 경우 폐기물에서 나오는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또한 분리수거 체계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것도 주요 원인이다. 따라서 호주 정부에서는 쓰레기 분류를 더욱 체계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분리수거가 원활히 이루어지면 소각 또한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Q2. 쓰레기 매립지의 경우 혐오시설이라 설치 시 주변 주민들의 반발이 컸을 텐데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상책이 있는지.

A2. 해당 시설이 운영을 시작한 1984년 당시 이 지역은 주거지가 아니었다. 최근 이 시설 주변에 주거지가 형성되긴 했지만 매립지가 형성되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보상은 없었다.

Q3. 매립지 부지는 주정부로부터 임대한 것인지.

A3. 클린어웨이 회사에서 해당 부지를 주정부로부터 구입했다. 따라서 토지세를 주정부에 납부하고 있다. 다만 토지를 매입하긴 했지만 매립이 완료되면 토지 정화과정을 거친 뒤 주정부에 돌려준다.

Q4. 일반 개인이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

A4. 이용 가능하다. 다만 호주 정부에서 1년에 4번 부피가 큰 쓰레기를 무료로 수거하기 때문에(일반 쓰레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수거해감) 이사를 가거나 큰 공사를 하지 않는 이상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Q5.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A5. 일반 쓰레기로 처리한다. 호주 쓰레기통은 3가지 종류가 있다.<사진 참조>

1. 빨간색: 일반 쓰레기

2. 노란색: 재활용 가능 쓰레기

3. 초록색: 잔디, 나뭇가지 등 바이오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는 악취, 다량의 가스 발생 등의 문제가 있어서 매립을 하지 않고 분리과정을 거친 뒤 전용처리시설에서 따로 처리한다. 호주 정부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음식물쓰레기 전용 쓰레기통을 만들어 보급하고 있는데(진한 녹색 쓰레기통) 아직까지는 보급이 많이 되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일반쓰레기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고 있는게 현실이다.



기관 방문: 크린어웨이 자원회수센터(호주의 쓰레기통 종류)

- 출처: 크린어웨이 홈페이지

Q6. 메탄가스를 활용한 발전 시설에서 사용한 전력은 어떻게 활용되는지.

A6. 메탄가스를 활용한 발전 시설에서 생산된 전기는 사회에 기증한다. 터빈 하나당 1000개의 가정집에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하고 현 시설은 18개의 터빈을 보유하고 있다.

Q7. 직원들에 대한 처우는 어떠한가.

A7. 호주는 산업안전에 대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측에 피해가 매우 크다. 따라서 사측에서 먼저 안전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쓴다. 예를 들자면, 모든 안전장비 및 건강검진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노동 현장의 안전 관리에도 신경을 많이 써서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은 현장에 접근할 수 없게끔 통제한다. 여러분들 또한 안전장비가 없기 때문에 버스에서 하차할 수 없는 것이다.

Q8. 매립작업이 완료된 다음 부지 활용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A8. 앞서 말했듯이 해당 부지의 매립이 완료되면 정화작업을 거친 뒤 주정부에 반납을 할 예정이다. 매립이 완료되고 시간이 지나면 매립된 쓰레기가 썩어서 가라앉는다. 그 후 남은 잔해를 처리하고 부지에 잔디를 깔아서 마무리한다. 그렇게 부지를 받게 되는 주정부는 해당 부지를 문화시설이나 공원으로 이용한다. 실제로 현재 부지 이전 사용했던 부지는 주정부에서 놀이공원으로 이용하고 있다. 현재 이용 중인 부지의 정화과정은 2037년 종료될 예정이다.

○ 기관 방문 사진



기관 방문: 크린어웨이 자원회수센터(담당자 브리핑 및 질의응답)

※ 안전 문제로 버스 안에서 진행

3. 알렌 워커 실버타운(Alan Walker Village)

- 주소 : 1 Dalmar Place Carlingford NSW 2118
- 방문일자 : 2024.05.23.(목) 13:00
- 기관개요 : 실버타운 행정업무 담당자 미팅 및 시설 견학

○ 주요 브리핑

- 호주의 노인복지에 대한 설명

1. 호주에서 60세 이상은 시니어로써 각종 복지 혜택을 받는다.
2. 노령연금을 통한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자택 서비스, 주간 보호 센터
3. 거동이 불편한 경우 요양원(Nursing home)에서 거주하며 비용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노령연금으로 충분

○ 주요 질의답변 내용

Q1. 호주에서 정년퇴직 이후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은.

A1. 호주의 경우 만 67세가 되면 정년퇴직을 하는데 정년퇴직자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하여 1인당 월 200만 원 상당의 지원을 해준다. 만약 부부가 함께 지원을 받게 되면 월350만 원 정도 지원을 받는다. 정년퇴직자의 경우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고, 국민연금 수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의 경우 정부에서 주는 노령연금을 받는다. 노령연금은 일주일에 약 400달러 정도.

Q2. 해당 시설에 대한 설명

A2. 호주의 노인 복지 시설은 크게 요양원이라고 불리는 Nursing home과 실버타운(Retirement Village)으로 나뉜다. Nursing home 같은 경우는 간호사가 상주하며 거동이 어려운 노인들을 돌보는 요양원의 느낌이 강하다면,

Retirement Village 즉 실버타운은 상대적으로 건강한 노인들이 은퇴 후 거주하는 주거시설이다. Nursing home 과의 차이점은 이곳의 경우 간호사가 아닌 사회복지사들이 거주하며 노인들의 생활을 지원해 준다.

Q3. 해당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A3. 주거시설은 거주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바닥은 폭신한 소재를 사용하여 낙상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끔 설계했으며, 시설 안에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게끔 다양한 시설들을 제공하고 있다.

<사진 참조>

Q4. 시설 입주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A4. 기본적으로 복지 기금을 위탁하여 임대하는 식으로 이용한다. 자금 여유가 된다면 방을 구입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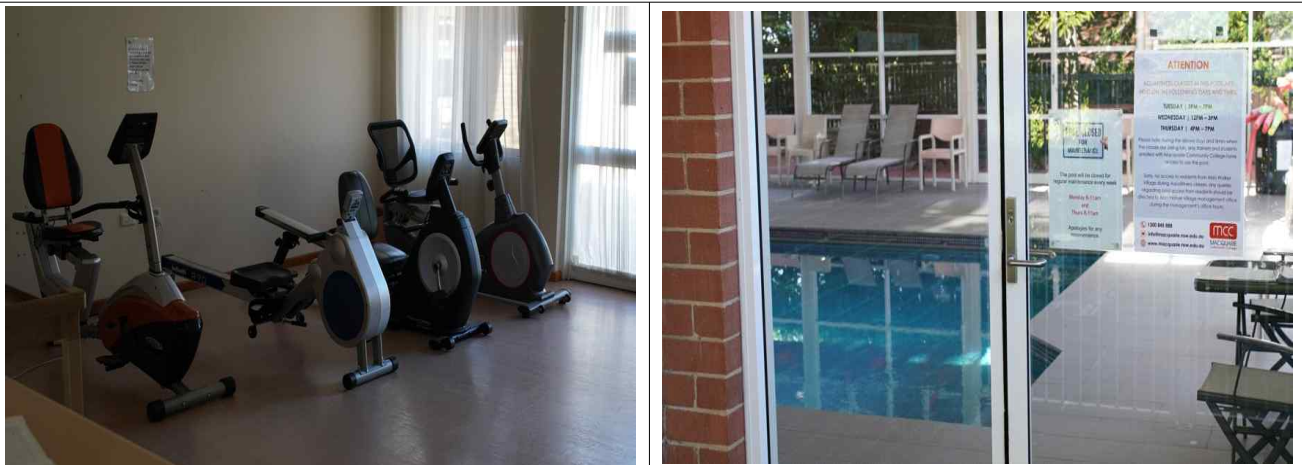
기관 방문: Alan Walker Retirement Village 실버타운(생활관)



기관 방문: Alan Walker Retirement Village 실버타운(진료시설)



기관 방문: Alan Walker Retirement Village 실버타운(음식점)



기관 방문: Alan Walker Retirement Village 실버타운(체육시설)



기관 방문: Alan Walker Retirement Village 실버타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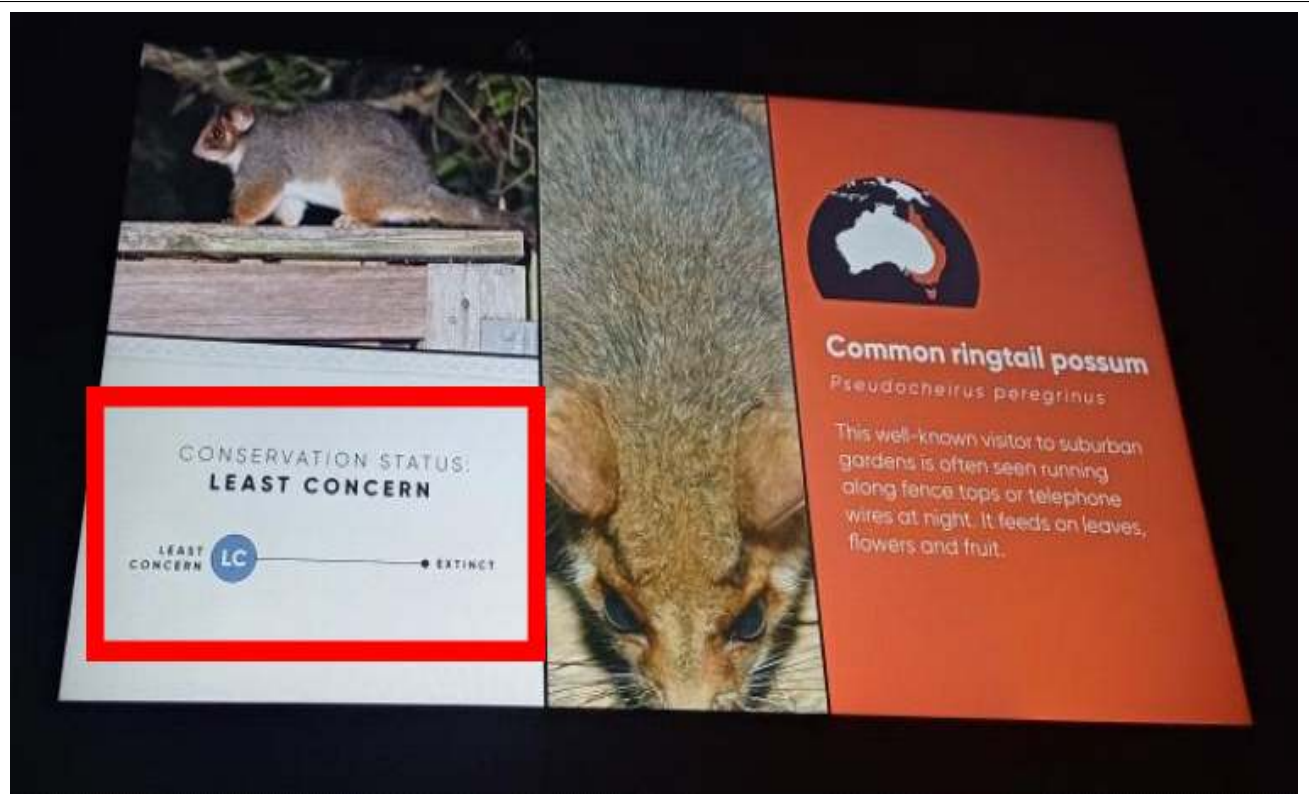
③ 주요 현장 시찰지

1.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시드니 동물원

○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개발 사례

보고서 서두의 출장 목적에서 언급했듯이 호주는 하나의 커다란 섬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유라시아 대륙과 분리된 채 호주 고유의 식생과 문화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다른 대륙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동물들(캥거루로 대표되는 유대류가 대표적이다)이 그 예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호주에 유럽 정착민이 들어서고 나서부터 호주 고유의 자연환경과 원주민 문화는 빠른 속도로 파괴되었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호주는 호주 고유의 식생과 문화를 지키고자 여러 방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사례는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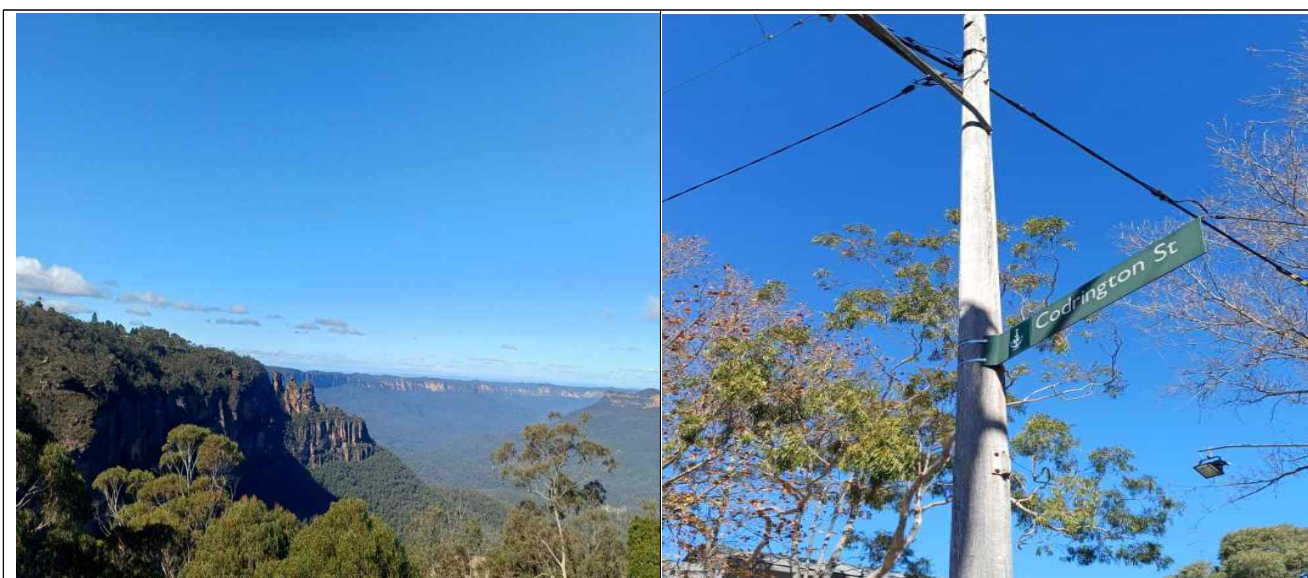


주요 현장 시찰지: 호주 동물원(멸종 위기 단계 표기)

위 사진을 보면 동물원 각 동물들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는 란에 해당 동물이 멸종 위기에 해당하는지 등급을 표시해 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통 일반적인 동물원의 경우 동물 안내 표지판을 보면 해당 동물에 대한 설명들만 있는데, 시드니 동물원에 있는 동물 안내 표지판은 해당 동물의 멸종 위기 여부를 나타내어 동물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환경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참고할만하다.

뒤이어 방문한 블루마운틴 국립공원의 경우 1억 년 전 해발 1000미터였던 고지대가 침식이 되면서 생긴 골짜기 지형이다. 호주 숲의 특징은 나무의 75% 정도가 유칼립투스 나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유칼립투스 나무가 호주 식물군을 독차지할 수 있었던 까닭은 역설적이게도 산불 때문이다. 유칼립투스 나무진은 불이 잘 붙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특히 호주의 건기

가 시작되면 이 유칼립투스 나무진은 증발하여 대기 중에 표류하게 된다. 이 대기 중에 떠다니는 기체 형태의 나무진이 멀리서 보면 푸른빛을 띠게 되어 ‘블루마운틴’이라는 애칭이 붙은 것이다. 불이 잘 붙는 유칼립투스 나무의 특성 때문에 건기가 되면 호주에서는 큰 산불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유칼립투스 나무는 산불로 전부 타버리더라도 특유의 끈질긴 생명력 덕분에 금방 세를 회복하여 산불이 휩쓸고 지나간 대지를 뒤덮게 된다. 호주는 이런 유칼립투스 나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목질이 단단하여 휘어지지 않고 내화성이 있는 까닭에 유칼립투스나무를 활용한 목재는 각종 건축재료로 많이 이용된다. 특히 호주 구시가지를 돌아다니다 보면 유칼립투스 목재를 기둥으로 활용한 전봇대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사진 참조> 유칼립투스 나무 진액은 또한 항균성이 강하기 때문에 항생제의 원료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 예시로 유칼립투스 꿀을 주로 채취한 벌집을 원료로 생산한 프로폴리스 제품을 들 수 있다. 프로폴리스는 다른 꽃을 채취한 벌집에서도 만들 수 있지만 유칼립투스 성분을 활용한 제품은 호주가 유일하다는 점에서 중요한 마케팅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주요 현장 시찰지: 블루마운틴 국립 공원(유칼립투스 목재를 활용한 전봇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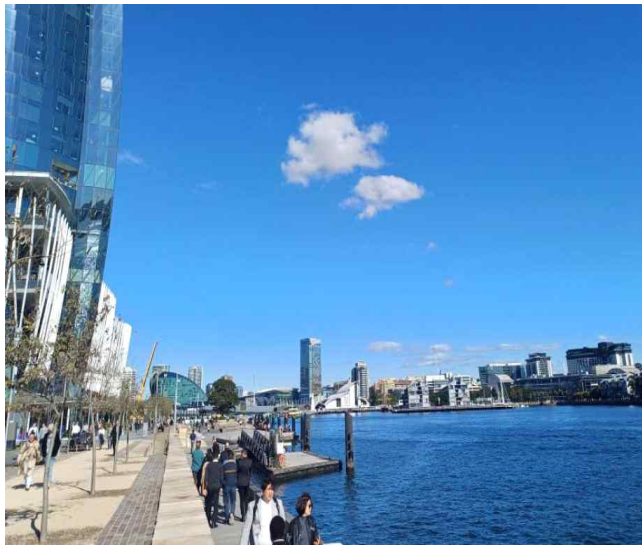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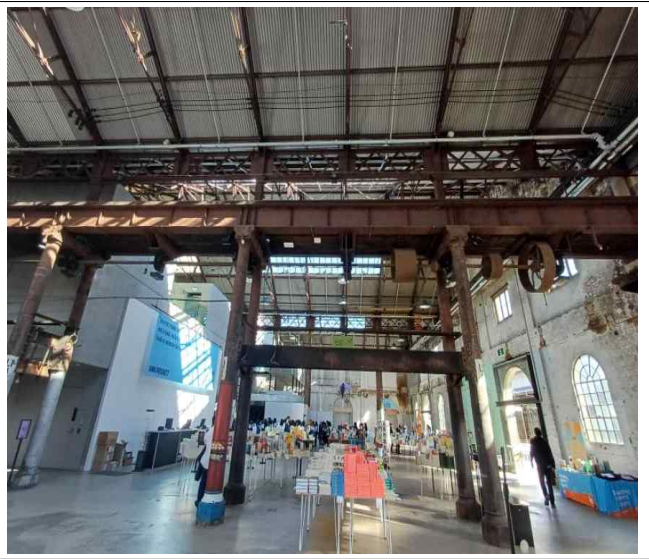
2. 캐리지 워크스(Carriage Works), 바랑가루(Barangaroo)

○ 노후 건축물 재활용을 통한 도시재생활 사업

호주의 역사는 200년이 조금 넘는 역사가 길지 않은 국가이다. 그렇기 때문에 호주하면 느껴지는 이미지는 오페라하우스를 필두로 한 도시적인 이미지가 강했다. 하지만 의외로 시드니 곳곳을 다니다 보면 유럽 구시가지 거리에서나 볼법한 옛 건축물들을 많이 볼 수 있다. 호주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 240년 정도 된다고 하니 국가로서의 호주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존재했던 건축물들이 지금도 잘 보존되고 있는 것이다.

그중에 대표적인 예로 캐리지 워크스(Carriage Works)와 바랑가루(Barangaroo)를 들 수 있다. 캐리지 워크스는 예전에 기차가 운행을 종료한 후 차량을 정차시키는 차량사업소를 전시회나 회의를 개최하는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곳이다. 어떻게 보면 전혀 연관이 없는 곳을 발상의 전환을 통하여 신선하게 재탄생시킨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대한민국은 호주보다 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근대 건축물에 대한 처우가 박한 편이다. 최근 들어서 인천광역시 곳곳에 근대 건축물을 재해석한 문화공간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괄목할 만하다. 예를 들자면 인천 중구의 ‘제물포 구락부’를 필두로 한 ‘개항장 거리’와 강화군의 방직공장을 카페로 재탄생시킨 ‘조양방직’을 들 수 있다. <사진 참조> 우리 옹진군 역시 과거에 사용했던 면사무소 건물을 주민자치센터로 이용하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위의 사례들을 통하여 옛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를 잘 살리는 방식으로 공간을 새로운 용도로 재탄생 시키는 방향을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주요 현장 시찰지: 캐리지웍스(Carriage works), 바랑가루(Baragaroo)(출처: 직접 촬영)
개항장 거리, 조양방직(출처: 구글 이미지)

3. 시드니 도심지(동부 해안, 시드니 시내)

○ 스토리를 통한 국가 브랜드화

마지막 일정으로 호주하면 떠오르는 건축물인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와 하버 브리지를 방문하였다. 도시를 상징하는 장소를 으레 랜드마크라고 일컫는데 이 랜드마크를 보기 위해서 그 나라를 찾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랜드마크는 관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호주는 수많은 랜드마크를 가지고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매년 호주를 방문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웅진군은 랜드마크라고 할 만한 장소가 있을까? 현실적으로 웅진군은 두무진, 사곶해변 같은 랜드마크로 삼을 만한 자연유산이 있긴 하지만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렇기에 우리 웅진군 역시 이런 랜드마크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실 랜드마크라 함은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나 하버브리지를 거대하고 화려할 필요는 없다. 아주 작고 소소한 것일지라도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면 언제든지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 특히 SNS를 통해 작은 소문도 삼시간에 퍼질 수 있는 현대 사회에서 아주 작은 계기만 있다면 입소문을 타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따라서 웅진군은 그 작은 계기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리고 그 작은 계기란 웅진군 섬들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그 이야기는 한 장소에 대한 설화가 될 수도 있고,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들 사이에서 발생한 미담이 될 수도 있다.

이번 호주 시드니 출장길에서도 이런 미담을 활용한 사례를 실제로 접할 수 있었다. 시드니 갭 파크(Gap Park)라는 이름의 공원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는데 이곳에 돈리치그로브(Don Ritche Grove)라는 장소를 지나가게 되었다. 공원 길목에 정체를 알 수 없는 표지석이 있길래 그 의미를 찾아

봤는데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었다. 이 갭 파크라는 공원은 옆에 해안절벽이 있어 매년 자살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이었다. 그런데 ‘돈리치’라는 이름을 가진 공원 근처에 사는 노인이 해안절벽에서 슬픔에 잠긴 사람들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넌 뒤 ‘우리 집에 가서 차 한잔 나누지 않겠냐’고 제안하면서부터 이곳에서 발생한 자살사고가 현저하게 줄었다고 한다. 이 미담을 접한 호주 정부는 2006년 훈장을 수여했고, 돈리치 부부가 활동했던 공원 내 기념공간을 마련해 놓은 것이다. 사진에 나와있는 문구는 돈리치 노인이 평소에 했던 말을 새겨 넣은 것이다. “Always remember of the simple smile, a helping hand, a listening ear, and a kind word.” (단순한 미소, 사람을 돕는 손길, 이야기를 들어주는 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기억해라.) 이곳에서 느낀 미담은 호주 출장에서 본 오페라 하우스, 하버 브리지, 블루마운틴 국립공원의 장관보다 더 진하게 마음속에 남았다.

Ⅲ 결론 - 국외출장 종합의견

“옹진군 섬 하나하나가 이야깃거리고 브랜드가 된다.”

이번 공무 국외출장에서 들은 이야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문구 두 가지는 아래와 같다.

1. 호주는 하나의 거대한 섬이다.
2.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다문화 사회이다.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호주가 하나의 거대한 섬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수도 있다. 하지만 호주 특유의 식생, 자연환

경이 가진 폐쇄성을 생각해보면 호주는 하나의 거대한 섬이라는 말이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이 호주라는 거대한 섬은 경제적으로 선진국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드는 관광지가 되었다. 호주가 갖는 독특한 자연환경은 하나의 브랜드 이미지가 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호주하면 캥거루와 코알라 등 호주 고유의 동물들을 떠올린다. 그리고 호주 사람들이 사는 도시, 건축물, 그리고 호주 사람들을 위한 국가의 복지정책 또한 하나의 강점이 되어 호주를 매력적인 국가로 느껴지게끔 한다. 그렇다면 역시 여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우리 옹진군은 이 거대한 섬 호주에서 무엇을 참고해 볼 수 있을까?

답은 이야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힘은 화려한 건축물과 희귀한 동물들의 존재로부터 올 수도 있지만, 그 건축물과 동물들이 빛나기 위해서는 그 배경 즉 이야기가 필요하다. 아무리 화려한 건축물일지라도 이야기가 없으면 그 화려함은 오래 가지 못한다.

그렇다면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야 할까? 이야기를 의식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또한 거창한 이야기일 필요도 없다. 주민들의 입을 통해 전해져 내려오는 설화나 전설, 미담들만으로도 충분하다. 이 이야깃거리를 핵심 주제로 브랜딩을 한다면 옹진군 섬 각각은 각자의 이야기를 가진 매력적인 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령 북도면 장봉도의 인어 이야기, 백령 대청면의 심청전 설화, 자월면 소이작도의 해적 이야기 등 참고할 만한 이야깃거리는 얼마든지 있다. 이 이야기를 통해 각 섬마다 캐릭터를 구축하고 관광안내판, 기념품 등으로 활용한다면 일관성이 부여돼서 각 섬마다 독특한 가치를 창조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된다.

“초고령화 사회와 다문화”

두 번째로 인상 깊은 문구였던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큰 다문화 사회’ 라는 말에서도 참고할 만한 점이 있다. 그것은 다문화사회를 바라보는 열린 마음이다. 현재 호주도 옹진군보다는 느리지만 초고령화 사회를 향해 가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보다 심각하지는 않지만 호주 역시 저출산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적이 있었다. 여기서 호주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이민 장려 정책을 펼쳤다. 현재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이민자들 역시 이 이민 장려 정책을 펼친 시기 대거 유입되었다고 한다. 물론 적극적인 이민 장려 정책은 그 부작용이 만만치 않았다. 인종차별과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지금도 미약하게나마 그 흔적이 남아있다. 하지만 짧다면 짧은 호주 출장 중에 느꼈던 점은 사람들의 열린 자세였다. 여유가 넘치고 친절하고 다양한 인종의 호주 사람들을 보면서 호주라는 나라가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옹진군 역시 현재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있다. 이런 옹진군에 다문화 정책이라는 국가적인 정책을 제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는 옹진군에서 살아가는 주민뿐만 아니라 옹진군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도 해당한다. 항상 하던 대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것을 벤치마킹해 보고 시도해 보는 자세가 있어야만 옹진군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열린 마음이야말로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하는 옹진군을 만드는 원동력이 될 거라 생각하며 2024년 옹진군의회 공무국외출장 보고를 마친다.